



상사上司를 움직이는 방법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상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신의 능력을 다해 성공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반복 그림에 불과하다. 대개 연봉 인상, 승진 등과 같은 일은 상사가 여러분을 잘 관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상사를 잘 움직이는 데 달려 있다. 그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선 상사를 감복하는 사람이 아닌 여러분의 일을 돕는 조력자로 생각하라. 그리고 상사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상사는 여러분이 일을 잘 해내리라 믿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일을 맡으면 열정적으로 처리하라. 지나친 약속을 하지 말고 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해내라. 자신도 없으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지 마라.

상사의 스타일에 맞추라

설령 좋지 못한 소식으로 상사가 화를 낼까 두렵더라도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보고를 미루지 말고 주기적으로 보고하라. 상사는 여러분에게 원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지하게 일할 때 고마워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심각해져서는 안 된다. 일은 진지하게 하되 성격적으로는 웃음을 잃지 마라.

상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는 무조건 순종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 변화 의지가 없거나 변화의 주변인으로 머물면서 불평만 해대는 것만큼 상사를 화나게 하는 일은 없다. 해결책이 없으면 문제를 제기하지 마라. 보고 시에는 상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빌딩숲 속에는 성공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성공하려면 상사를 움직여라.

한 최소의 단어와 짧은 문장으로, 핵심을 꼭 짚어 말하라.

상사는 여러분이 적당히 일하고 있을 때 귀신같이 알아챈다. 상사는 여러분이 난관을 뚫고 주어진 일을 제대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상사는 저마다 자신만의 관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움을 받으려면 상사의 스타일에 맞춰라. 그러려면 상호간에 '자기 인식'과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을 하려면 자주 대화하라. 때때로 상사는 여러분이 하는 일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 침착하게 답하라. 그래야 상사는 여러분이 경

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상사와의 만남을 위해 적어도 1시간 이상 준비하라.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 상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미리 알아서 제공해야 한다. 그러려면 호기심을 가지고 상사의 경험과 관심 영역에 관해 탐구하라. 최우선 과제는 상사를 성공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상사의 일도 여러분을 보다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만약 상사가 이러한 호혜주의(互惠主義)를 통한 상호협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상사를 찾는 게 급선무다.

어느 누구도 회사 재무 상태를 보고 비전이 없다고 하지 않는다. 바로 자기

상사를 보고 판단한다. 존경할 만한 상사가 아니고, 철학을 가진 상사가 아니고, 업무에 효율적인 도움을 주는 상사가 아니면 비전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리더의 역할은 한마디로 비전 심기다. 비전 없는 상사 밑에서 근무하는 것은 갑갑한 일이다.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상사와의 갈등, 상사에 대한 불신의 다른 표현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사의 신뢰를 얻어라

상사 또한 마찬가지로. 막강한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실력으로 무장된 디지털 세대 부하직원으로 인하여 설 자리가 없다.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세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으로 정보기술의 실력을 갖추어야 살아남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배워야하는 물론,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좀 더 효율적인 경영과 성과를 위하여 능력 있는 부하직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상사와 부하직원이 서로 마음을 사고, 신뢰를 얻는 것이야말로 양방향 리더십의 제 1요건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상사의 성공을 도움으로써 상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부하직원이 되라는 것이다. 상사의 신뢰를 얻어 상사를 움직이는 부하직원이 결국 그 조직의 중역으로 성장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외국인을 영어와 일어로 전도합시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슬성신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emblem of Holy Dew Spirit which has various forms; fire, blood and the column of smoke?

血と火と煙の柱のように様々な形で現れるつゆ・甘露が象徴するのは何ですか?

● 이슬성신은 죽음의 영인 '나'라는 자존심 마귀를 죽이고 불사영생에 이르는 천국 문을 여는 데 성공한 이긴자 구세주를 상징하는 것이다.

It is Holy Dew Spirit which is the symbol of Victor Christ who has overcome Self-consciousness Ego, the Spirit of Death, Satan, and He opened the gate to immortality.

つゆ・甘露は死の霊である'私'という自尊心の魔鬼を殺して不死永生に至る天国のドアを開ける事に成功した勝利者・救い主を象徴することです。

● 이슬성신은 메시아 이긴자의 출현을 선포하는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께 이슬과 같이 임하신다고 했다. 이슬성신은 성경상의 감추었던 만나요, 불경의 감로, 중국 전설에 나오는 삼신산의 불로초이다.

It proclaims the Advent of Israel(the Lord Messiah), for the Bible has it that "I will be the dew to Israel"(Hosea 14:5). It is the very Hidden Manna, the Sweet Dew of Buddhism and the Mysterious Herb of Mount Samsin of the Chinese legend.

つゆ・甘露はメシア・勝利者の出現を宣言することで、聖書は神様が勝利者につゆのように臨まれると記しています。つゆ・甘露は聖書上の隠されたマナで、仏典の甘露、中国伝説に出てくる三神山の不老草です。

● 이긴자 구세주의 분신인 이슬성신은 공기속의 나쁜 물질, 마귀영을 정화시켜 하늘나라의 공기로 점점 변화시킨다.

The Holy Dew Spirit purifies the evil air and gradually change into the air of Heaven by detoxifying through His other selves.

勝利者・救い主の分身であるつゆ・甘露は空気中の悪い物質、魔鬼の霊を浄化させて天国の空気ですます変化させています。

● 성경 시편에는 살아 숨 쉬는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은 공기 중에 가득 한 이슬성신을 호흡함으로써 점점 불사영생의 존재로 변하게 되므로 만물들에게 이긴자 구세주를 찬양하게 하라고 했다.

The Bible says,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Psalm 150:6)," All living things, such as plants and animals breathe the Holy Dew Spirit will be changed step by step into immortal form.

聖書の詩篇には生きてすべての動物や植物は空気中にいっぱいあるつゆ・甘露を呼吸することによってますます不死永生体になるので、万物に勝利者・救い主を讃美しましょうと記しています。

속담 속의 영생학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다. 화려한 단풍과 함께 벼들이 고개를 숙이는 추수의 계절 가을 진정된 겸손과 영적인 인생추수를 이긴자 구세주님 통해 알아보자.

34년 동안 승리제단에서 세계를 향하여 인류는 하나님을 알려 주시며 영생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 구세주는 영생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과 행동이 남달랐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웃집이 쌀이 없어 굶는 것을 알고 물레 집에 있는 쌀을 갖다 놓고 오고, 집안이 가난해서 겨우 죽을 먹을 때는 부모님을 더 드시기 하기 위해 큰 집에서 먹고 왔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이러한 희생정신은 군장교가 되어 위치가 높아졌을 때도 이어졌다. 장교임에도 화장실 청소를 사병들 물레 밭에 하기도 하고 몸이 허약한 사병에게는 당신에게 배당된 고기국과 쌀밥을 주시고 본인은 그 허약한 사병의 콩보리밥을 장교생활 11년 동안 계속 드셨다. 또한 공부를 못하고 들어온 군인들 종교등 과정을

가르쳐서 검정고시 합격과 대학을 가도록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셨다.

1980년 10월 15일 승리자 이긴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선포했을 때는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지요'라고 대답을 하시고 이긴자가 되었다고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여는 때와 같이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셨다.

사람들은 성경을 1000번 읽었다, 책을 수천권을 읽었다 등 겸손보다는 자신을 내세우기 바쁘다. 하지만 내안에 자존심을 몽땅 뿌리째 뽑아 버리는 열마경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승리제단은 내안에 자존심이 아니라 양심인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참나를 회복하는 곳이다. 자존심을 버리고 이런 일도 감사 저런 일도 감사하는 생활이야말로 분명히 성경, 불경 모든 경전에서 말하는 진짜 '나를 버려라'의 실천인 것이다.

겸손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서 죽지 않는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하여 영원 무궁토록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인생 추수가 바로 지금이다. 분별력 있는 진짜 지식인이여! 승리제단에 하루빨리 동참하시라!*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꾸기

보조용언 띄어쓰기①

보조용언은 띄어 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예)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O)/ 그릇을 깨뜨려버렸다.(O)

비가 올 듯하다.(O)/ 비가 올듯하다.(O) 잘 아는 착한다.(O)/ 잘 아는척한다.(O)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예) 잘못 놀아만 나는구나!/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이 외에 주의해야 할 보조 용언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언제나 붙여 다니는 낱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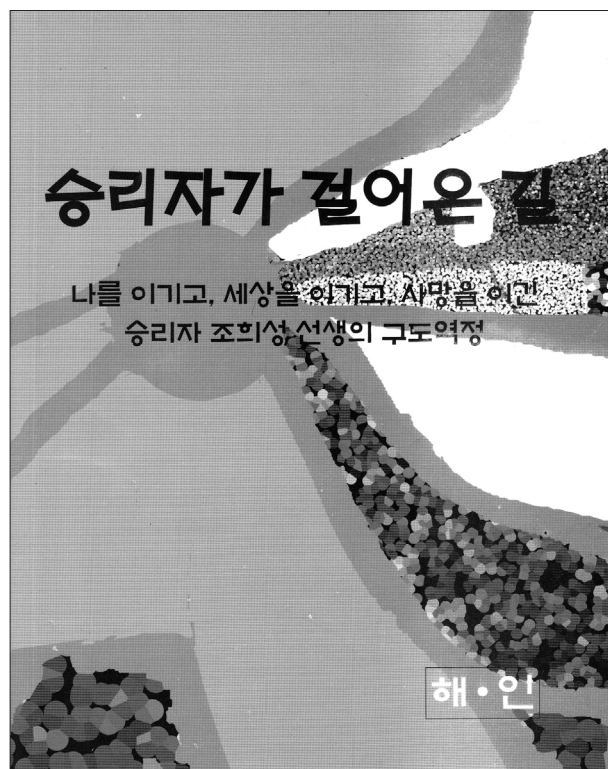
예) 집으로 간 듯하다./ 불 만하다./ 갈 만하다./ 그럴 법하다. 있을 법하다./ 늦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작을 성났다. 잘 될 성났다./ 잃은 셈치고, 준 셈치고./ 가고 싶어하다. 먹고 싶어하다./ 아는 체한다. 잘난 체한다.*

이승우 기자

신간 안내

승리자가 걸어온 길

영생을 추구하는 구도자의 필독서



정가: 2,000원

승리자 조희성 선생의 구도 역정

열흘씩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했어도, 30일씩 물 한 모금

잠 한숨도 자지 않는 금식기도를 14번을 했어도

'나'를 완전히 이긴 것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버리고 버려도, 죽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길을 찾았고,

드디어 '나'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나'를 이긴 승리자가 되고야 말았다.

승리자 한 사람이 나온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은 것이다.

누구든지 승리자가 걸은 길을 걷기만 한다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민족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가 출현하셨습니다. 그 승리자의 말씀이 담긴 소중한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배포하게 되면 구세주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tel: 032) 343-9985

도서출판 해·인